



『태평양전쟁을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버린 채 原爆의 피해자라는 사실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노예처럼 끌려가 강제관소에 1인당 2천만 원(1인당 2천만 엔)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賠償訴訟기 訪日하는 희생자유족회 梁順任씨

「日帝만행」 아직 아물지 않았다

고 일본으로 떠나는 태평양 전쟁 희생자유족회의 梁順任(梁順任)씨(46). 그는 노예처럼 끌려가 강제관소에 1인당 2천만 원(1인당 2천만 엔)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버린 채 原爆의 피해자라는 사실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노예처럼 끌려가 강제관소에 1인당 2천만 원(1인당 2천만 엔)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기/3 교포번호사 자원... 정부도 지원을

어요. 자신들에 의해 저질러진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발발 5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5일 오후 1시50분 일본항 공 932편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그러나 유족회 상임이사 양순임(46·여)씨는 지난 1월 행정법원에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일본으로 떠나지 못했다. 이번 소송은 17살에 장신대로 끌려가 온갖 곤욕을 치른 김학순(67) 할머니를 비롯, 일본 군함에서 폭격을 맞아 팔이 잘려나간 김영환(70) 할아버지 등 모두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 유족 35명이 도쿄지방법원에 1인당 2천만 엔씩의 피해배상소송을 내고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등을 돌며 전후처리 촉구 거리시 위도 벌일 예정이다.

정부에 피해보상 소송 제기

정용피해자 35명 7억엔 청구기로
1991. 11. 30
유족회는 "회원 1만5천명 가운데 피해증거가 명확해 승소가 가능성이 큰 회원들만 피해유형별로 나누어 대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피해보상청구액은 1인당 2천만엔(한화 1억1천5백만원 상당)씩 모두 7억엔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중군 위안부는 김학순, 김순자, 김백씨이다.

일본정부상대 소송제기

태평양전쟁유족회(회장 김충대) 회원 등 41명이 태평양 전쟁 발발 50주년을 맞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5일 오후 1시50분 일본항 공 932편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그러나 유족회 상임이사 양순임(46·여)씨는 지난 1월 행정법원에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국금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일본으로 떠나지 못했다. 이번 소송은 17살에 장신대로 끌려가 온갖 곤욕을 치른 김학순(67) 할머니를 비롯, 일본 군함에서 폭격을 맞아 팔이 잘려나간 김영환(70) 할아버지 등 모두 일본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그 유족 35명이 도쿄지방법원에 1인당 2천만 엔씩의 피해배상소송을 내고 도쿄, 오사카, 히로시마 등을 돌며 전후처리 촉구 거리시 위도 벌일 예정이다.